

TEAM HONMA 김자영프로, KLPGA 생애 첫 우승!

2012년, 혼마골프와 계약한 김자영프로가 말하는 사용 클럽에 대한 느낌과 스펙

주식회사 혼마골프

2012년, 주식회사 혼마골프(대표 이사: 니시타니 코지)와 용품 사용 계약을 맺은 김자영프로가 한국 여자 투어 2012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5/18-20)에서, 연장전 끝에 극적인 데뷔 첫 승리를 하였다.

김자영프로는 우승한 다음날, 혼마골프 한국지점을 방문하여 이번 대회 클럽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드라이버- 작년에 비해 거리가 20야드 정도 늘어서, 세컨샷 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드라이버는 힘을 다해 쳐야 했지만, 지금 혼마 C-01 드라이버는 힘들이지 않고 부드러운 샷만으로 충분한 비거리를 낼 수 있다.
-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 작년 여름에 처음 테스트를 할 때부터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서, 처음 피팅한 스펙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한다.
- ★아이언- 타구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올 초 일본 혼마골프 사카타 공장에 방문해서 피팅을 할 때, 헤드 하나 하나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나니 더욱 믿음이 간다.

특히 혼마골프 프로서포트팀은 선수가 마음에 들 때까지 다양한 클럽을 테스트하게 해주고, 클럽 체크 및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어서, 클럽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다. 이번 우승에 이러한 믿음이 작용한 것도 있다.

(클럽 스펙은 하단 프로필 참조)

김프로는 작년 여름부터 클럽 테스트를 시작하여, 올해 2월 1일 계약체결 후, TEAM-HONMA KOREA의 일원으로서 일본 사카타(酒田) 공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클럽 피팅을 하였다. 이번 우승은, 처음으로 출전한 2012 HYUNDAI China Ladies Open에서 우승한 김혜윤 프로에 이어 2012 KLPGA 투어에 있어서 TEAM-HONMA KOREA의 두번째 우승이 되었다.

●TEAM-HONMA KOREA 결성 배경

2011 US 여자 오픈 우승으로 USLPGA에 참가하고 있는 유소연프로에 이어 실력은 물론 아름다움도 갖춘 프로를 영선해서 계약하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으로 인식 되어온 혼마골프 클럽의 타겟을, 보다 젊은 층으로 낮추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생년월일】 1991 년 3 월 18 일
 【출신】 한국
 【신장】 165cm
 【프로전향】 2010 년

【사용클럽】
 1W: BERES C-01 PROTO 9°
 FW: BERSE C-01 PROTO 3W/5W
 UT: Perfect Switch UT 22/25
 Iron: BERES IC-01 PROTO 5I~10I

코멘트

훈마골프와 계약하여,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플레이중에는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TEAM-HONMA KOREA



왼쪽부터 안신애, 김혜윤, 양수진, 김자영, 홍진주

<문의처>

주식회사 훈마골프 한국지점
 영업/마케팅 본부장 김성남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9-8 2F
 전화번호 02-2140-1802(직통)
 www.honmagolfkorea.com